



대행스님

독자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naum

“고개 숙이지 못하면 쪽정이 벼이삭”

우리가 왜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으로 해서, 첫째는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나라를 안정되게 할 수 있으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유스럽게 살라는 뜻이며, 둘째는 여러분의 모습이 언젠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 하여도 이 다음에 뚜껑만 열면 최상의 수행자로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으리만큼 경지도 회지도 않은 모습으로 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 깊은 바다의 흘러드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설법이며, 들고 남이 없이 용을 하는 것이 바로 문수의 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푸르른 청정한 산과 들, 꽃이 피고 새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승가의 설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일체가 들어 아입니다. 물이 아닌 까닭에 푸르고 꽃 피고 물 흐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러한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대업을 쌓고, 내 가정이 부유하여 고생하지도 않는데 뭘 배운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이는 세계의 물질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소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못하면, 쪽정을 낚는 벼이삭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실천을 옮길 수 없으니 사람이 되어 가지고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같은 것이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할 마디 하겠는데, 과거·현재·미래가 따로 따로가 아니라 과거는 현재에 가져왔고 미래도 현재에 가져왔으며, 여러분이 가고 있고 일어나고 늙고 먹고 배설하고 앉고 서고 일하는 것이 전부 참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사가 왜 참선이 되느냐고 생각하셨지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아버지·오빠·형님·동생·남편·자식·사위 등등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듯 많습니다. 일체만법의 일체만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며

결정짓고 행을 하는데 들고 내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것도 즐거운 것도 전부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즐겁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 하듯이 일체 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조작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도깨비 장난을 하기도 하며, 법신이 되고 보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세계평화를 가져오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마음을 잘 다스려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요”

난 가끔 여러분을 접하면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디다만, 만약에 내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했다면 답답할 일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이 내 고통이요, 여러분의 몸이 내 몸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처 마음도리를 알지 못하여 마음이 여지없이 흘러지곤 합니다. 다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내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물질 세계의 50%만 보고 항상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이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남의 말에 속고 남의 행동을 보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니, 자기를 끌고다니는 주체의 참자기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만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시여! 당신은 말할 수 없이 자비하신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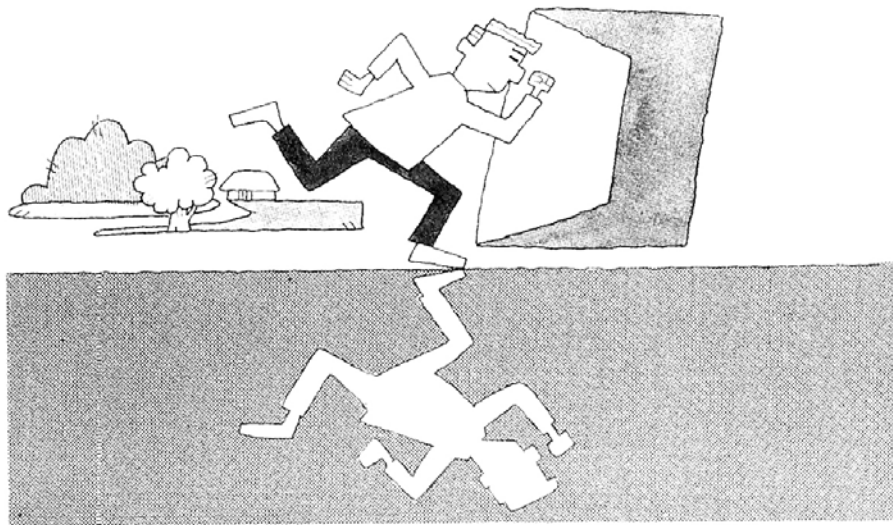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남의 말에 속고 행동에 끌려다니면 노예”
“마음으로 아주 죽으면 어디에도 걸림없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색경을 바라. 거기에 있느냐?” 하기에 색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생긴 내 얼굴만 보이지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디다. 그건 왜냐하면 부(父)와 자(子)가 상통을 했는데도 미처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전을 많이 봤습니까? 설법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걸 미처 모를 수 밖에요.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러다가 “색경을 바라. 네가 손을 쳐들면 나도 손을 쳐들 것이고, 네가 찌푸리면 나도 찌푸릴 것이며, 네 그릇이 크다면 나도 큰 것이고, 네 그릇이 작다면 나도 작을 것이며, 네가 울면 나도 따라 우는 것이니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 뜻을 알고나서는 그 자리에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도 몸이 고달프다는 생각이 없었고, 못먹었다는 생각도 없었고, 괴롭다는 생각도 없을 뿐더러 나 홀로라는 생각도 없

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높이 앉았다고 해서 높이 앉은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습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저렇게 등상 위에 높이 앉아 계시다고 해서 높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하는 그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항상 자비를 베푸시면서 할나할나 들고 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이는 세계의 중생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생들을 모두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러

허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통증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인의 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분은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물질에 젖고, 말 수단에 젖고, 배워서 아는 게 많은데 젖고, 습에 젖어서 벗어나질 못하고 뒤흔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맛 볼 것입니까? 죽는 것도 반쯤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만 생산이 될 것입니다. 아주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아주 죽지 못한다면 고통을 하면서 길게 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이 아닌 개닭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관사관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 양으로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물이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죽는다면 몸도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고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며 남들을 이익하게 해줄 수 있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혹 “비구니인데 뭐 얼마나 알겠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의 차원이지만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며, 나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죠.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님이 없으리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의 모든 생명들과 바람·흙·물·불, 아니 산천초목의 나무 한 잎사귀도 불교 아닌 게 없거늘 어찌 사람인데 비구니여서 모자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돌 하나 굴러 가는 걸 보고 발부리를 쳐서 발이 떨어져도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로 중독할 것입니다.

물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이 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상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냈을까요? 그러나 하나 하나 생명이 있어서 이심전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그달리지 않고 자유인의 경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만 재미있지 않고 딱딱하기만 하겠지요? 그러나 그 재미없는 이야기들이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웃기거나 하고 과거 이야기나 한다면, 여러분은 웃고 즐기겠지만 여러분 속의 여러분은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16면으로 계속

생활 속의 불교 169

그대는 예순살이라도 청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네.

“불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 주고 길을 밝혀 준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하며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불법을 알면 살아가는 이치가 즐겁다. 불법을 알면 환희에 찬 내 마음이 일체와 더불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불법은 일체 중생을 버리는 법이 없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오직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 아름다운 향기로 모두를 감싸준다. 고로 불법을 아는 삶은 고(苦)가 아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구나/장미빛 봄, 붉은 입술, 강인한 육신을 뜻하지 않고/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과/그리고 인생의 길은 샘에서 솟아나는 참신함을 뜻하구나. .../때로는 스무살의 청년보다 예순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

그렇다. 인생의 길은 샘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솟아오른다면 예순살 노인일지라도 스무살 청년보다 더 활기찬 삶,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시인의 말처럼

청춘이란 연령의 청춘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청춘인 것이다. 따라서 스무살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예순살의 청년도 있을 수 있다.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다. 고로 어떤 생명체든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과정을 밟는다. 심지어 모든 사회제도나 질서, 문화적 관습들도 그런 과정에 맞춰져 있다. 때로는 꼭 짜여진 틀처럼 그런 과정이 역으로 우리의 삶을 구속한다. 우리는 숙절없이 자신의 삶을 그 과정에 맞게 채색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어느 새 삶이란 다 그런 것이라며 체념한다. 육신의 나이테가 뒤질래 거기에 얽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늘 천진동자(天真童子)로 살면 안되는가? 만년청춘의 역동적인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면 안되는 일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시인은 이렇게 단언한다. ‘그대가 기계를 읽고, 그대의 정신이 냉소주의의 눈과 비판주의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스무살이라도 늙은 이라네. 그러나 그대의 기계가 낙관주의의 파도를 타고 있는 한, 그대는 여든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네!’

인생이라는 게임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 그 둘은 이상하게도 동전의 앞 뒷면처럼 붙어 다닌다. 마치 우리들과 시소타기를 즐기기도 하려는 듯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태우고선 오르며 내리 명 한다.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괴로움이 딱 터 자라나고 괴로움이 커지는가 하면 다시 즐거운 일이 생겨 그 괴로움의 쓴 맛을 잊게 한다.

사람에 따라서 혹은 때에 따라서 시소가 한 쪽으로 오래 기울기도 하지만 인생은 결국 고·락의 시소게임이다.

이왕 한 철 사는 인생인데 늘 청춘으로 살 수는 없을까. 늘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는 없을까. 그 방법은, 그 해답은 불법 속에 있다. 불법은 우리가 왜 사는지가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나아가서 청춘으로서 길게 사는 법, 괴로움을 떨치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제시해 준다.

불법 속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청춘의 샘이 있다. 커내어도 커내어도 줄지 않는 즐거움의 샘이 있다. 바로 마음의 도리이다. 그러나 늘 청년의 에너지가 샘 솟게 하는 일, 즐거움의 샘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일만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각자의 마

음먹기. 육신의 나이테를 피해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의 나이테는 자신들이 하기 나름이다. 육신엔 정년이 있고 노년기가 있었지만 마음엔 정해진 정년도 없고 노년기도 없다. 시인의 말처럼 여든 살이 되도록 청년정신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낙관주의, 자신감, 긍정적 사고... 그렇게 한 생각 돌리는 거기에서 청년의 샘은 솟아 오른다.

괴로움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비판적인 생각으로, 냉소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괴로움은 더욱 커진다.

반면에 실망과 공포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선념과 기쁨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경계에 맞서면 삶의 색깔은 서서히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마음먹기. 불법은 그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샘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불법은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감싸는 힘터가 되기도 한다. 기계엔 언제나 아름다움과 희망과 기쁨이 있고 용기와 힘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 고로 불법을 아는 삶은 고가 아니다.

협찬 : 김 교 도